

“모두가 행복한 명절 되도록”

전북도, 자금집행 확대 운용... 취약계층 자금·건설공사대금 1천억 최우선 집행

전북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 자금집행을 확대 운용한다.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생활시설 차례상차리기 지원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과 각종 건설공사대금 1000억원을 최우선으로 앞당겨 집행하게 된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아이돌봄지원 및 학교무상급식 등 사회복지 예산

200억원 정도이며,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건설공사 대금으로 200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200억원 및 기타 농·축산분야 사업비 등에 400억원 정도를 민생경제 각 분야에 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는 추석명절 자금집행을 위해 보유한 자금 중 1,000억원을 대기자금이로 관리하고, 사회복지 지원, 물품 및 공사 대금 등 자금청구에 맞추어 신속

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과 노임의 체불여부를 확인해 대금이 미지급된 현장에 대해서는 자금집행을 독려하고, 대금지급 지연·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직접 지급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만 도 자치행정국장은 “추석 명절 전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받는 도민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함께 했던 시간 행복했습니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퇴임식이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도내 정당과 업무협의회·봉사활동 실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북선관위 상환실 및 모악산 등산로 일대에서 정당과의 신뢰증진 및 소통을 위해 도내 정당 당직자와 함께 정당과의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5개 정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

당)전북도당 당직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업무협의회를 통해 정당업무 및 정치자금 업무에 대한 상세한 업무절차 및 법규 등을 안내하고 정당의 건의사항 및 법규 개선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 당직자들은 전북선관위 직원 봉사단체인 ‘공명이사랑나눔회’ 회원 20여명

과 함께 모악산 등산로 및 주차장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당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전북선관위와 각 정당이 신뢰를 바탕으로 내년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깨끗하고 건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내 중소기업 국방산업 진입로 찾다

전북국방벤처센터, 신규협약기업 사업지원 협약체결식 가자

전북도, 전주시와 국방기술품질원이 공동 운영하는 전북국방벤처센터는 국방 분야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일 전북국방벤처센터에서 10개 신규 협약기업과 사업지원 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해 10개 협약기업 (주)진흥주물, (주)에스엠신소재, 두루텍(주), (주)케이마린, (주)세진실업, 한국그린에너지(주), (주)에이치피케이, (주)솔루션뱅크플러스, (주)피치케이, 세이프웨어(주)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라북도와 전주시, 국방기술품질원, 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 공고했으며,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10개 신규업체가 선정됐다. 이번 협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사업비 지원으로 군 사업화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등 전반적인 국방사업화 지원뿐 아

니라 경영컨설팅, 홍보지원 등의 경영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인 (주)로텍시너지는 육군 전력지원 체계사업단이 공고한 ‘발칸 교전모의기 성능개량 정부투자 연구개발 사업’ 약 12억원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주)투미컴은 국방분야 신영공사 LED 실내등 설치에 10억 매출을 올리는 등 국방시장에 활발히 진출 중에 있다. 이남섭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들이 국방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운영 당부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 첫 간부회의를 열고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취임한 첫날인 9일 오후 7시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등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조 장관은 앞서 취임사에서 밝혔듯, 앞으로 법무부 혁신

과 검찰개혁,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를 다시 강조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뉴시스

민주 임순남 지역위, 직접 장 보며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펼쳐

더불어민주당 임순남 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승)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일과 9일 인월 전통시장과 남원 공설시장, 용남시장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주요 당직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직접 장을 보며 ‘재래시장을 애용합시다’의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장 이용을 홍보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애로사항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박희승 위원장은 “전통시장에는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넉넉한 인심과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다”며 “지역민들이 고유의 전통과 정서가 깃든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순남 지역위원회가 지난 8일과 9일 인월 전통시장과 남원 공설시장, 용남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벌였다.

신속한 피해복구 위해 행정력 ‘총동원’

전북도, 태풍 피해 복구에 온 힘... 시·군·군부대 등 대민지원 적극 동참

전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도, 시군 및 군부대 합동 대민지원에 나섰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9일(12시 잠정)기준, 전라북도에도 벼 도복, 과수나과 등 총 2,011농가에 1,716.3ha 피해가 접수되었다. 벼 도복은 전체 재배면적중 1.2%, 과수나과는 8.1%에 해당한다. 도는 각 시·군을 통해 태풍 피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10일 도, 시군 및 군부대 등 1,000여명의 인력이 직접 피해농가를 찾아 일손을 덜어줬다. 35사단 및 예하부대의 장병 300여 명이 9개 시·군 도복 피해 농가를 찾아 벼 묶어세우기 등 피해 복구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각 시·군 공무원과 유관기관(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농수산대학교, 농산물품질관리원) 680여명은 벼 묶어세우기와 배, 사과 등 낙과 피해농가 중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농가 현장을 찾아 대민지원에 나섰다.

더불어, 읍면동을 통해 농가에 태풍피해 작물 사후 관리요령(벼는 배수로 정비 및 묶어세우기, 사과·배는 낙과물 제거)을 신속히 전파해 농가 스스로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물국장은 “추석 대명절을 앞두고 태풍으로 인해 피해 농가들의 상심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만 교직원 모두에

디지털 문해력이

성숙한 민주시민을 만듭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90%

짧은 글과 영상이 익숙한 사람들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디지털 문해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진짜와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능력,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은

깊이 있는 읽기에서 시작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